

技術 用役의 海外進出

- ……技術用役의 海外進出이 活潑해지고……○
- ……있다. 특히 中東地域의 用役輸出을 비……○
- ……뜻해 技術人力 輸出이 날로 增加하고 있다.……○
- ……土木, 建築, 機械 電氣電子 醫療 等, 모든 分野……○
- ……에서 우리의 技術 技能이 脚光을 받고 있다. 더욱더……○
- ……誠實한 韓國의 技術을 浮刻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對……○
- ……處할 것인가 紙上座談을 펼쳐본다. —편집부—……○

李德俊(韓國機械 建設 本部長)
金容海(勞動廳 中央職業訓練院長)

鄭敏植(海外開發公社 就業部長)

1. 技術者

李德俊 本部長

◇ 技術用語와 語學의 討練 ◇

국제경쟁에 참가하려는 個人이나 企業의 필수적인 要件은 語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大學校 高等學校, 中學校에서 約 10年동안 교과목중 70—80% 정도의 배정을 받아 語學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 생활화 될 수 있는 어학공부를 못했고 學校만 떠나고 나서면 거의 잊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科學技術界 특히 建築部門에서는 재래 日本技術用語와 단편적인 外國語, 즉 정리되지 않은 技術用語를 간단간단하게 使用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사람들과 기술적인 대화를 하게될 때는 言語가 소통되지 않으면 그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技術을 가지고 있다해도 目的한 일을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1개 내지 2개의 어학을 外國에 나간다는 것을 전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기초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통역자가 있으니 쉽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技術用語나 또는 그속에 내포되어 있는 기술적 背景은 찾아

내기 힘들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학의 문제가 물론 자기 자신의 훈련이 중요하겠지만 團體의 公益性을 찾아 根本적이고 長期的인 計劃과 실천이 없이는 기술내지 두뇌의 수출목표에 큰 蹉跎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技術教育制度 確立과 情報센터 운영을 ◇

技術制度의 종합적인 研究, 調査分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海外開發의 主流은 노동력 위주의 개발수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제도가 크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目標은 技術 그 自體를 資本化하여 우수한 기능수출과 병행하여 國家的인 稼得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國際競爭 속에서 대등하게 比較될 수 있는 정연한 技術의 定立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李德俊 本部長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필요로 하는 지역은 Turn-Key Base의 project化하는 경향이 현저하기 때문에 Design 또는 Engineering 으로부터 건설시공 및 그 management 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System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技術의 定立이 되지 않은 현재의 입장으로서로는 쉽고 그리고 좋은 條件의 海外進出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方法으로는 長期的으로는 根本的인 技術教育制度의 확립을 세워야 되겠으며 短期的으로는 건축의 각종단체의 聯合體를 構成 現설업체와 공동으로 綜合建築技術情報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수집정리와 배포 그리고 散在된 技術能力을 集合시킴으로써 効率的인 해외진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技術의 Management化 ◇

技術者가 가지고 있는 技術 그 자체의 우열을 論하기 보다는 技術을 바탕으로 한 企業으로 어떻게 직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경영이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국내건설업체에서 공사현장 소장이라면 技術者가 맡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을 맡고있는 技術者로서 基本的인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技術者를 떠나서 技術을 바탕으로 한 사업경영이나 기업운영을 해 나가는 자세가 있어 주어야 되겠는데 특히 外國에 나갈 경우는 종합예술로서의 건축설계도 그 著作目的은 實物化에 있고 實物化해 나가는 데는 分野別要素를 綜合化하는 技法이 그 기반을 이루는 만큼 Management化는 餘他 어느分野의 技術 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韓國의 技術者들은 정연한 技術의 正立이 서 있지 못하고 절름발이 技術制度가 몸에 배어 모든 것을 자신의 지식테두리 안에서 解決하려는 경향이 많고, 專門分野別 分業化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General한 知識을 한몸에 지닌 상태에서 특단적인 추진태도가 보다 깊은 경지의 技術追求를 멀리하게 되고 分業化된 技術이 綜合化된 技術에 比하여 弱體로 노출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는 한 海外開發의 대열에 끼일 수 있는 저력은 감소되는 것임으로 전문분야별 分業化가 先行되어야 겠으며, 이것을 効果的으로 운영할 수 있는 技術의 綜合化를 몸에 지니지 않는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계속

해서 해결 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게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技術者로서의 생활은 創作生活을 하지 않는 이상 企業에 소속되어 이윤추구를 目的으로 技術의 효용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임으로 Management를 수반하지 않는 技術은 實用化되지 못할 것이고 海外進出이라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인 것임으로 우수한 技術을 곧 하나의 Project를 완전하게 Manage할 수 있는 능력을 결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國內技術陣 종합提携를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稼得率을 높이고 대형화된 Project의 消化에는 반드시 Turn-Key Base의 경우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으로 技術의 現代化가 결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海外에서 한국의 技術수준을 유감 없이 발휘한다고 보겠지만 實際로 고도의 技術을 要하는 部分의 委任은 아직도 한국인에게는 난색을 表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때 무엇보다도 한국技術의 現代性을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부문에서 現代化의 要素를 국제경쟁에서 자신있고,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수준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건축설계면에서 國際的인 경향이 經濟性에 바탕을 둔 商業建築에 主眼點을 두게 됨으로 국내 설계수준으로 世界 어느 곳에 가서라도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認定問題입니다. 즉 지역적인 특수성과 생활양식의 差異點은 우리의 우수한 力量을 그대로 받아들여 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책은 개인적인 設計用役의 운영체를 脫皮하고 公益團體內에 해외부서의 신설과 과감한 투자로 보다 폭 넓은 정보망을 구성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海外進出의 大企業과 제휴하여 기업적인 역량을 倍加시키고, 확대된 技術습득방침을 통하여 技術의 고도화 및 正예화를 기하고, 진밀한 意見交換 내지 合作으로 우리가 지닌 技術을 보다 効果的으로 現代化 시켜야 되겠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시공기술면의 改善方案을 보면 工法

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設計圖書에 의한 工法에 左右되어 그 비용의 차이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은 물론 最近 發註者測에서는 공사비 見積提出요구시 필요한 施工法을 決定 그 근거에 의한 공사비 산출요구의 例가 많음으로 事前 충분한 檢討와 계획아래 준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건설업계에서는 풍부한 노동력으로 현대장비의 필요성을 대치하여 온 現象이었고 그 方法이 몸에 젖은 우리들로서는 不知不識間에 장비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작업량의 算定을 하여 後에 돌이킬수 없는 자금부담과 工期지연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있었던 事實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잘못과 시행착오는 비단 技術者의 지식수준의 미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지니고 판단된 결정이라도 外的條件에 依해 계획의 실현여부가 결정됨으로 보다 넓은 視野를 가지고 폭넓은 정보만을 동원 기술적으로 越等하고 경제적으로 最善의 方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공기술의 선택 결정이 外國에서의 Risk를 가능한 한 격제하여 기술이익은 물론 기업이윤에도 보탬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技術人 自身들의 개선점으로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技術者와 外國에서 칭하는 Engineer의 개념부터 생각해 봅시다. 국내의 기술자들이 하는 역할을 分析해보면 순수한 Engineer로서의 임무수행보다는 Foreman의 기능을 맡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그 습성이 海外에서도 반복됨으로써 자칫 外國側의 大多數가 한국의 Engineer에 對한 나쁜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자기 능력의 충분한 발표의 기회도 없이 한국전체의 기술수준을 평가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技能工이 充分히 할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일을 大學을 졸업한 技術人이 그 役을 담당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人力資源의 낭비이고 상대방에게는 水準 以下の 한국 Engineer의 質을 노출케 되는 결과임으로 각자의 본분을 생각하고 기술인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해외진출의 많은 기회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現地 적응으로 理解增進 ◇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기업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철경은 누가 먼저 그 사회에 쉽게 그리고 가장 正確하게 순화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기술의 수단을 통해서 일자체의 추진만을 추구하는 것이 成果의 全部가 아님으로 서로를 理解하고 同化됨으로써 人間味를 바탕으로한 원만한 진행을 기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이 되라」는 名言이 새삼 진리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技能工들은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질을 가진 技術工들이 海外에 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그 사람들은 Lead하는 技術者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 그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技術程度와 制度, 方法 등을 수집하여 중점적으로 교육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교육방법으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즉 그 지역의 특성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能率의으로 解決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2. 技 能 者

鄭敏植 취업부장

◇ 海外進出의 窓口 ◇

海外就業이나 海外移住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체로서 금년 4월에 특수한 法人體로 새로히 발족했습니다만 現在는 技能을 소지한 者가 저희 창구를 利用하여 海外進出을 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일괄해서 당공사 등록과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등록을 한 사람 중에 우수한 기능을 소지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해외에 간다는 욕심만으로 自己의 實力을 돌보지 않고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外部에서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때 1차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合格시키고, 2차시험은 고용주가 직접 면접하고 실기테스트를 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海外進出 職種 ◇

등록직종은 11개 분야에 約 80個 직종이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되는 직종에 技能을 소지한 자로 본인이 직접 당 공사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지방노동청에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就業者로 부터 일체 알선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敏植 就業部長

◇ 技術人の 海外進出 ◇

당공사는 외국고용주들의 요청에 따라서 많은 국내 기술자들을 해외에 진출시켜, 외화를 획득하고 국위선양을 目的으로 하는 이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다른나라 사람보다 규율면에서나, 조직생활면에서 모범적이어야 되겠으며 自己條件을 상당한 수준의 기능과, 外國에 나가 적용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추어 주기 바라며 그러므로 해서 장차 후진들이 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무원은 물론이며, 각주요업체, 국영기업체, 방위산업체에 계신 분들은 국내에서 필수적인 요원임으로 해외취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타 분들에게 공평한 海外就業를 알선하고 있으므로 우선 등록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大學을 卒業한 技術者나 高等學校를 나온 우수한 技能者들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外國고용주들은, 공장의 총책임자나, 어느 한 부문에 총책임자를 선정할 경우 많은 技能者들을 거느려야 되므로 英語會話, 통솔력, 기타社會에서 가져야 되는 상식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되겠기에 大學出身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보수문제는 사전 협의가 철저히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외국고용주가 한국에서 데려가는 技術者의 水準은 반장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中間管理를 겸한 技能者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이니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技能者들은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한 회화정도는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으며 몸에 익혀 두어야지고 고용주들의 면접에 合格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 現地에서 본 人間關係

金容海 院長

서독과 월남에서 노무관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것입니다만 技術者가 海外에 도착하게 되면 人間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人間관계를 성실성있게 유지하여 나가고 이것을 기반으로

로한 건전한 상식으로 그 지역의 환경을 판단하게 되면 적응력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現地에서의 人間關係가 고용계약을 연장한다고 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통념적인 技術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원만한 유지가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시정되어야 될 것은 한국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인정을 받게되면 비약하려고 합니다. 차곡차곡 성실하게 쌓아 올라가지 않고 한꺼번에 해치워 버리려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어째서든 通하지 않는 것처럼 現地에서는 특히 결점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므로 시정하여 성실성 있는 人間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후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해외진출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容海 院長